승리를 만끽하는 방법, 성폭행.. 전리품 된 사람들

이재은 기자 · 2018. 12. 3. 05:57

[이재은의 그 나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화교 ②] 1998년 화교 강간살해 사건으로 들여다본 여성 강간의 역사

[편집자주] 세계화 시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각 나라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나 국제뉴스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국제정치와 각 나라의 역사, 문화 등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나갑니다. 매주 월요일 연재됩니다.



1998년 인도네시아 화교 강간살해 사건. /사진=위키커먼스



바하루딘 유숩 하비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임기 1998년 5월~1999년 10월)은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 국민을 대표해 밝힙니다. 1998년 5월 발생한 폭동 기간 중 화교를 살해하고 화교 부녀자를 성폭행한 사건(인도네시아 화교 강간살해 사건)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비인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98년 5월 군부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촉구 항의가 화교 폭동으로 번졌다. (☞1998년의 기억... '대통령'이나 '장관'이 될 수 없는 자들 [이재은의 그 나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화교 ①] 참고)이 폭동으로 수도 자카르타에서만 5000여개의 화교 소유 공장과 집이 불태워졌고, 170여명의 화교 여성들이 성폭행당했으며, 1200여명의 화교가 살해당했다. 수라바야, 빨렘방, 메단 등지에서는 더욱 격렬한 폭동과, 강간살해가 자행됐다. 이 사건에 대해 비극이 아니라고 할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건, 폭동 속 인종청소(제노사이드)의 전형적인 모습인 '여성 강간'이 다시금 나타났기 때문이다.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갈등에 따른 폭동, 전쟁 상황 속에서 제노사이드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된다. 학살, 약탈, 고문 등. 여기에 한 가지 형태가 더 있다. '전시 강간'이라고도 불리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다.

실시간 트렌드 오늘 22:53 기준

1 안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3 불꽃야구
4 금리인상
5 세계의 주인
6 투컷 존박 디스랩 발끈
7 홈플러스
8 박지현 토익 900점
9 나는 솔로
10 김창민 감독

이 시각 추천뉴스

5성급 호텔 커튼 떼어다 허리에 둘렀나..박지현, 원단 욕심... 텐아시아 · 2시간 전
"췌장암 진단 전, 신호 있었다".. 배연정이 겪은 '의외의 ... 헬스조선 · 3시간 전
"담배 피고올테니 집안일 시작해라"..양홍원, 이혼 2달 전 ... 스포티비뉴스 · 18분 전
천하람 "한동훈, 조희대 탄핵 인용 의원직 건다?..뭘 자꾸 ... kbc광주방송 · 16분 전
'100일의 거짓말' 작가 입 열었다 "박진영 김유정 처음부터 ... 뉴스엔 · 34분 전
"수능 예상 못한 성적 나와" 5일 만에 부학생회장 사퇴..'대... 헤럴드경제 · 3시간 전
'행시' 21세 최연소 수석 "소년급제는 불행..AI 세상, 나도 ... 뉴스1 · 3시간 전
파주서 카페 사장 된 박혜수, 연예계 미련 남았나..팬들 편지 ... 엑스포츠뉴스 · 20분 전
"국민 여동생 돌아왔네"..갸름해진 문근영, 청룡영화상 시... 스포츠조선 · 5시간 전
어머니 수술비 260만원 훔친 중학생, 잠복 끝에 잡았는데..... 파이낸셜뉴스 · 4시간 전



중국 장수성 난징에 위치한 난징대학살 추모관에 생존자들의 모습이 걸려 있다. /사진=위키커먼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군에 의한 독일여성 집단강간이나, 1937년 12월13일부터 6주간 일본군이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뒤 30여만명의 중국인을 학살하고, 2만~8만명의 여성을 강간한 '난징대학살'(혹은 난징대강간) 역시 이 같은 사례 중 하나다.

그렇다면 전쟁이나 폭동 상황 속 패전국·패전민족 여성들에 대한 강간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전 브라운 밀러는 책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에서 "여성을 소유하는 것이 남성으로서 성공을 보증하는 징표였듯, 여성을 보호하는 일 역시 오랫동안 남성으로서 자부심을 보증하는 징표였다"면서 "점령군이 벌인 강간은 패배한 쪽 남성의 힘과 소유권에 대한 환상을 모조리 파괴한다. 강간을 통해 여성의 몸은 상징적인 전쟁터가 되며, 승리자가 개선식을 벌이는 광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역사 속 꾸준히 패배한 쪽의 여성의 몸은 승리한 쪽의 전리품으로 취급됐다.

수전 브라운 밀러는 이와 맞아떨어지는 사례도 제시했다. 콩고와 벨기에 여성들이 당한 성폭행 사건이다. 콩고 흑인 여성들은 벨기에 식민지 시절(1885~1908년) 벨기에 남성들에게 빈번하게 성폭행당했다. 이후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거쳐1960년 7월 자유 국가가 되자, 콩고 남성들은 독립해방의 기쁨을 표출하고 싶었다. 그 방법은 콩고 전역에 남아 있던 벨기에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이었다.

단순히 승리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만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하는 건 아니다. 슬프지만, 이는 제노사이드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성폭행당한 여성은 본인의 민족에서 일종의 '걸레'라는 낙인이 씌워져 사회에서 제거되거나 추방되는 일이 잦았다. 성폭행당한 여성은 주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였고, 여성의 가족은 이 같은 기억을 잊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곤 했다. 즉 성폭행은, 여성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파괴하며 민족 공동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했다. 여기에 여성이 혼혈 아이를 임신할 경우 여성의 민족성이 또 한번 희석되는 효과도 있었다. 태어난 아이는 성폭행 가해 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인종 청소가 이뤄진다.

보스니아의 독립 선언으로 시작된 1992~1995년 보스니아 내전 때도 그랬다. 당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에서는 세 개의 인구 집단, 즉 보스니아인으로 불리는 무슬림(이슬람교), 보스니아 내의 세르비아인(세르비아 정교)과 크로아티아인(가톨릭) 간에 격한 영역 다툼이 일었다. 세르비아와 가까운 보스니아 동부(스레브레니차, 사라예보 등)에서는 특히 세르비아인과 보스니아인 간의 갈등이 심했다.

동아일보 · 2시간 전

박용진, 조희대 탄핵 추진에 "실익 없어..민주당 책임으로...
헤럴드경제 · 2시간 전

"부모님이 연락 안 돼" 신고받고 가보니…구례 주택서 '가...
경향신문 · 4시간 전

'단발에 노출 드레스' 한지민, 1년 새 달라진 분위기..눈부신...
스포츠조선 · 7시간 전

"한국인들 외모 관리에 진심이라더니"..인구 대비 세계 1위 ...
아시아경제 · 5시간 전

문가영, 청룡 여신이더니 레드카펫 떠나서는 MZ..구교환...
뉴스엔 · 17분 전

'41세' 박민영, 뼈말라 탈출했는데 "영포티·늙크크 조롱 많...
스포츠조선 · 2시간 전

오정세가 웃기고 김윤아가 울렸다..축하공연으로 다시 쓰...
스포츠조선 · 36분 전

이민정, 도쿄 여행 중 이병헌 사진 실력 폭로.."얼굴만이라도...
일간스포츠 · 1시간 전

머니투데이 PICK

집값 통계의 허상 | 배민, 지역화폐 구... | 배달공화국의 그늘 | 2027 수능

2028년 서울 입주 물량 38년래 최저... 공급 공백에 주거 ...
23시간 전

대출규제로 잡은 강남 집값... '유동성의 역습' 버텨낼 수 있...
23시간 전

"아파트 여전히 비싸" 7억 넘는 빌라 거래 50%↑...재개...
23시간 전

'거래량 1/4 토막' 강남만 보고 집값 꺾인다?...소수 거래가 ...
23시간 전

집값 통계의 허상 더보기

머니투데이 랭킹 뉴스



2016년 7월1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레브레니차 포토차리의 추모묘지에서 1995년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 당시 생존한 무슬림 여인이 친지의 묘 곁에서 애도를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내전이 벌어지자, 보스니아 세르비아계는 내전을 인종청소의 기회로 삼았다. 이에 세르비아군은 UN이 안전 지역으로 선포한 피난민 주거지 스레브레니차를 침공해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했다. 특히 1995년 잔혹성이 극에 달했는데, 보스니아 세르비아계는 스레브레니차에서 여성과 노약자를 추방한 뒤 전쟁 참여가 가능한 연령대의 보스니아 이슬람계 남자 8000여명을 집단학살했다. 이렇게 남성을 제거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무슬림 여성들에 대해 계획적 집단 강간을 실시했다.

학교, 교회 등에 가임기 여성으로 판단되는 무슬림 여성(10~60세 사이)을 한 곳에 몰아두고 집단 강간을 해서 혼혈 아이를 임신시켰다.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여성들이 낙태하지 못하게 감금했다. 이는 무슬림 말살에 효과적이었다. 무슬림 여성들은 명예를 더럽혔다며 가족, 사회로부터 유리됐고 아이들은 세르비아계 피를 이어받음으로써 무슬림계 민족성이 흐려졌다.



르완다에서 1994년 일어난 투치족 등 인종청소 대학살을 잊지 말자는 4월 7일의 추모행진에 나선 키갈리 시민들. 2018.04.07. /사진=뉴시스, 신화

1994년 여름부터 약 3개월간 투치족 여성들에 대한 집단 강간을 통해 투치족을 말살하려했던 '르완다 집단 학살' 때도 마찬가지다. 이 시기 약 80만명의 투치족이 학살당했고, 살아있는 모든 투치족 여성들은 후투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강간당했다. 25만~50만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많이 본 뉴스 | 검색한 뉴스

1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무죄 확정...대법 "증거 부...
2시간 전

2 한은, 기준금리 3.25%로 또 인상...올 하반기에만 ...
3시간 전

3 아들과 포착된 송중기..."여전히 대학생 같아" 이번엔...
2시간 전

4 "큰일 났다"...장항준·나홍진 제친 '청룡 최초' 여성 ...
4시간 전

5 [속보]대법,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횡령·배임 사건...
3시간 전

서비스 바로가기 뉴스 연예 스포

뉴스 홈 | 기후/환경 | 사회
경제 | 정치 | 국제
문화 | IT/과학 | 인물
지식/칼럼 | 연재 | 배열설명서

굉장히 다양하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희화화(운전 못하는 김여사 등)하다가, 점점 조롱하고 낙인을 찍는다. (김치년, 창년 등) 이렇게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던 게 조건과 기회가 되면 개별적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으로 나아간다. 그 끝엔 제노사이드가 있다. 여성을 집단 강간해서 죽이는."

사실 1998년 인도네시아 화교 강간살해 사건은 화교 몰살을 바라 자행됐다기보다는 화교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의도가 더욱 컸다.(군복 차림으로 화교 여성 1명을 성폭행 할 때마다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군부는 6원의 장려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즉 당국의 막후조정과 사주 그리고 격려를 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제노사이드의 사례로 보지 않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 사건과 여타 학살의 사례를 짚어보고 왜 늘 여성 강간이 역사 한켠을 차지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풀이됐는지 짚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오월의봄, 수전 브라운 밀러
인도네시아 화교사회 형성과 반화교폭동에 대한 연구, 중국인문학회, 홍재현
식민형 '중간시민'에서 동화형 '유사시민'으로, 신명직
동남아 화인디아스포라의 현지사회 정착과 화인정책,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김혜련
화교에서 화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박경태
인도네시아의 화교와 화교 자본, 지역연구, 신윤환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바다출판사, 신시아 인로

☞[이재은의 그 나라, 베트남 그리고 국제결혼 ①] 계속

[관련기사]☞"소통하자" 황교익TV에 '싫어요' 폭발한 이유☞나눔로또→동행복권 변경...로또, 어디서 사나요?☞"아빠가 밖에서 낳은 오빠, 30억 엄마 재산 상속 받는다고?"☞[MT리포트] "더 늙고 싶어요" 나이 올려달라는 장년층☞'마지막 출장' 김동연, 런던서 저녁밥 굶은 이유는?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소통하자" 황교익TV에 '싫어요' 폭발한 이유
- 나눔로또→동행복권 변경..로또, 어디서 사나요?
- "아빠가 밖에서 낳은 오빠, 30억 엄마 재산 상속 ...
- [MT리포트] "더 늙고 싶어요" 나이 올려달라는 ...
- '마지막 출장' 김동연, 런던서 저녁밥 굶은 이유는?
- '사익 추구 의혹' 이정재, 수척한 얼굴로 청룡 무...
- [속보]신현송 "반도체 영업이익 700조 추정...국...
- "알바하면 일주일 만에 잘려"...사유리, ADHD ...
- "부장님, 열차가 안 와요" 출근길 급하게 '반반차...
- 꽁꽁 숨은 '수능 만점자'들...가채점 만점 최소 3...

다음뉴스 서비스안내 · 24시간 뉴스센터 · 공지사항 · 서비스 약관/정책

기사배열책임자 : 임광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원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Daum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Daum Corp.